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의료봉사 펼쳐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센터장 이계정)는 지난 1일 광주외국인력 지원센터에서 국제 의료봉사 단체인 브릿지의료인화(회장 정성남)와 함께 의료봉사를 펼쳤다.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제공>

광주광산경찰, 대학생 성폭력 예방 설명회



광주광산경찰(서장 임광문)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률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배안 주기 팔찌' 비즈 공예 체험을 통한 대학생 성폭력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산경찰서 제공>

동강대, 쇼핑몰 창업 현장체험 실시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 창업보육센터가 최근 쇼핑몰디자인창업과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디자인센터와 광주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동강대 제공>

한국거래소,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



국성 오산면 성덕마을에서 열린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에서 KRX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과 이장현 국회의원, 강남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젊은이도 함께 즐기는 충장축제 대야죠”

댄스로 충장축제 홍보 조성윤씨

전국 돌며 홍보하지만 SNS 반응은 '미지근' 10월 7일부터 5일간 열려 청년 참여 무대 늘려야

‘추억 & 어울림’(Memory & Harmony).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2회 추억의 충장축제’의 주제다. 충장축제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가 가장 번성했던 70·80년대를 중심 테마로 지난 2004년 시작됐다. 지난 세대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70·80이란 테마로 출발한 축제는 복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꾸준히 성장했고, 2015년 국가지정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고향 광주에서 열리는 축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무대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조성윤(26)씨는 애항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에 내가 주인공이란 생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홍보단에 들어온 후 축제에 대해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됐고, 좀 더 일찍 관심을 갖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축제에 관심이 커질수록 얻는 재미도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는 지난 2013년 춤을 좋아하는 경영학도에서 전업댄스강사로 변신했다. 현재는 광주 조이댄스아카데미에서 일하며 춤을 좋아하



조성윤(앞줄 가운데)씨와 홍보단 30여명이 지난 30일 대전시민과 충장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는 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충장축제를 알리는 안무를 만들고 촬영해서 공유했던 것이 계기가 돼서 홍보단으로 참여한 조성윤 씨. 그는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보단에 관심을 보이는 대부분은 어르신들이에요. 큰 테마가 70·80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축제다운 축제가 되려면 젊은 청년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SNS에서 충장축제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찾기 힘들어요.” 대학생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충장축제 홍보단은 5월 1일 동구청에서 출범식을 연 후 인천, 청주, 대전을 방문했다. 인천공항 등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특산품 등을 알리며 춤과 함께 광주와 충장축제를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적으로 SNS를 활용한 축제 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누리꾼들 관심은 요

원한 상황. 그는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늘리자고 강조했다. “많은 행사가 열리지만 ‘보는 축제’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시민은 아래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 넘어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70·80만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충장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나눔·베움의 표상 김병무공 적덕비 제막

순천시 낙안면 석정마을에

나눔과 베품의 표상인 소식 김병무(1903~1980) 선생의 선행과 공덕을 기리는 적덕비(積德碑)가 순천시 낙안면 석정마을에 당산바위 쪽 삼거리에 세워졌다. <사진> 김병무 선생은 낙안면 석흥리 출신으로 한학에 조예가 깊었던 선비로 언제나 마을과 불쌍한 이웃에게 은정을 베풀었다. 수년간 마을사당을 운영하면서 학비를 받지 않았다.

특히 1956년과 1962년 수해를 당한 마을주민 80여 호에 백미를 지급했고, 주변 마을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나무와 대나무를 제공하는 등 이웃 돕는 일을 실천해 순천향교에서 선행 표전장을 받기도 했다.

김 선생의 집에 들고나던 객객들은 1933년 선생의 이러한 선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목비(木碑)를 세웠다. 목비에는 “골짜기에 살면서도 사립문을 활짝 열어 선행을 베풀었네. 남의 어려움을 다급하게 여겨 굶주리는 이들을 먹여 살렸으니~ 이에 아름다운 행적을 기록하여 널리 드날리도다”라고 새겼다. 이날 목비가 세워졌던 자리에 적덕비를 세우고 기존 목비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여 영구히 유물로 소장도록 했다. 순자인 김점태 순천시청 시민소통과장은 “향약의 4대 강목중 하나인 ‘좋은일은 서로 권한다’는 덕업상관(德業相助)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할아버지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을 모아 적덕비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김순전 전남대 교수 저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김순전 교수의 ‘한일 경향소설의 선행적 비교연구’(제이앤씨)가 대한민국의학술원 2015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이 책은 김 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계몽사조, 개화소설, 정치소설, 근대소설, 사회소설, 신경향파소설 등의 연계성 공유와 그 시간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비교한 연구사다. 저자는 ‘소설과 사회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전제로, 한·일 ‘사회와 문학’의 관계가 다양하고 진하게 얽혀 있는 경향소설을 1860~1930년대에 이르는 70여 년 간의 시간대를 축으로 비교 고찰했다. 아울러 ‘한일 비교문학’ 연구

의 바람직한 방향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을 각자 민족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각과 과정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문학 활동에 있어서 작가와 작가, 작품과 작품을 독립영역으로 파악해 비교 연구했던 지금까지의 시각에서 탈피해 시간의 동일 연장선상 흐름으로 연결하는 선행적(線形的) 비교연구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R&D 사업계획 보고회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관필·사진)는 최근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에 대한 2014년도 주요성과와 2015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과 발전방향, 광주 R&D 성과 DB시스템 소개 등이 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관필 원장은 “전국 10개 과학연구단지(Science Park) 가운데 광주센터가 ‘우수기

관’으로 선정돼 본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며 “이번 성과보고회처럼 협력기관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들이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지원단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 ▲기재유·엄혜영씨 장남 형규군 이권철(전남발전연구원장)·김명숙(지도 석교초 교장)씨 장녀 지성양=6일(토) 낮 12시 서울 KW컨벤션센터 02-598-3000.
- ▲조성광(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주희숙씨 장녀 아라(안양양지초등학교)·최희영(현대로템 미안마 주재대표)·남기연씨 차남 환우(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군=6일(토) 오후 1시 안양 웨딩노블레스 031-381-0100.
- ▲전병호(남도일보 부회장)·김금례씨 장남 정인(MBN 사회부 범조팀 기자)·이길영·김옥자씨 장녀 주연(KG이니시스 회계팀 대리)양=13일(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프라자 1층 그랜드볼룸.

알림

- ▲2015년 한국나라사랑학회 국제보훈 학술대회=광복 70년 통일대비 한국전쟁 호국영웅과 보훈외교 방향, 5일 오후 1시 30분 송원대학교 대학본부 회의실 062-

- 360-5880.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 062-267-5510.
-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 동창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보규)월례회=5일(금)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중친회**
- ▲경주 김씨 광주전남 중친회 재광 이사회=5일(금) 광주시 동구 금남로 맛집 한겨레 010-6455-6296.
- 모집**
-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 ▲충남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

- 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헌신 합창단 모집. 062-675-5955.
-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지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 부음**
- ▲이금임씨 별세 노장군·중군·부군·경군·송군·윤군·윤화·정주·정미씨 모친상=발인 3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이기철 님(남/72세) 子/子婦 : 이춘호, 황호/안소영 女/婿 : 이리과/김태연, 보라 未亡人 : 남영민 ●발 인: 6월 3일 ●장 지: 고흥교산 선영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윤남선 님(여/91세) 子/子婦 : 조영재/김금단, 영상/유정숙, 영동/신미숙, 영두/박금숙 女/婿 : 조영자/이영하, 현숙, 덕진/손봉채, 혜영/최봉상 孫 : 조봉근, 조정훈 ●발 인: 6월 3일 ●장 지: 화산동안선영 ●연락처: 227-4382		
401호 故백순재 님(남/53세) 女 : 백경미, 설화 未亡人 : 이금숙 ●발 인: 6월 3일 ●장 지: 보성읍 선영 ●연락처: 227-4383	102호 故최은희 님(여/76세) 子/子婦 : 박광연/이영숙, 공식/박미영 女/婿 : 박원숙/최영만 ●발 인: 6월 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